

경제·사회적 여건 도민 만족도 낮다

균형위, 지역실태조사
제주 삶 만족도 48.2%
일자리 등 전국 하위권

제주지역 경제·사회적 여건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민들은 일자리 기회 등 경제활동 여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지역민의 삶의 질 현황을 조사한 균형발전지표(주관지표)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각 시도의 주민을 대상으로 경제·사회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며, 조사부문은 주거·교통·산업·일자리·교육·문화·여가·안전·환경·보건·복지·공동체 관련 총 28개 주관지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주민들은 제주 지역 내 삶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48.2%가 '그렇다'고 답했고, 42.9%는 '보통', 8.9%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제주지역 평점은 3.45점으로 전국 평균(3.54점) 보다 낮았다. 이는 세종(3.18점), 충남(3.36점), 경북(3.31점)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다.

거주여건과 관련한 '상·하수도, 도로, 도시가스 등 기초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53.4%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나 제주 지역 평점은 전국 평균 3.88보다 낮은 3.46점으로 역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광주(4.22점), 서울(4.05점), 울산(4.00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제주 지역 주민들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에 대해서는 53.7%가 만족한다고 했으나 평점(3.40점)을 보면, 이 역시 전국 평균(3.46점)에 못미쳤다.

'주차장 이용 편리성'의 경우 만족한다는 답변은 37.6%에 불과했다. 33.3%가 불만족, 20.9%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평점은 3.03점으로 전국 3.27점 보다 낮았다.

경제활동 일자리 여건 만족도에서도 부정 답변이 긍정 답변을 웃돌았다. 응답자의 49.5%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만족한다는 답변은 13.7%에 머물렀다. 이 부문 전국 평점은 2.92점으로, 제주(2.51점)는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2.48점)을 제외하고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지역에서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만족도도 긍정 13.7%, 부정 49.5%, 보통 30.3%, 모름 6.5%를 나타내는 등 제주의 평점(2.58점)은 전국 평균(2.94점)을 밑돌았다.

'성인 교양 및 취미' 부문에서도 '지역 내 성인들의 교양교실, 취미교실 등의 교육 기회 충분성'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은 25.7%에 머물렀다. 이 부문 전국 평균 만족도는 3.45점으로 광주, 부산, 울산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제주는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자연재해 및 재난 등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제주는 3.16점으로 타 지역 대비 만족도가 낮았다. 전국 평균 3.66점으로 광주, 부산, 서울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지연'에 대해서도 전북, 부산, 광주, 울산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제주는 3.02점으로 가장 낮았다.

'환경 여건' 부문에서 '지역 내 소음, 악취, 쓰레기 및 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 만족도는 평균 3.59점으로, 부산, 광주, 경남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충남, 제주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부미현기자



한라산 돈내코등반로 속칭 울릉밭 일대에 산철쭉이 화사한 진분홍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한라산 산철쭉은 오는 10일을 전후해서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 산철쭉 10일 전후 만개

1400~1500m 고지서 개화 시작
철쭉제는 코로나 예방차원 취소

진분홍으로 한라산을 물들이는 산철쭉이 다음 주중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다만, 올해 '한라산 철쭉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차원에서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해발 1500고지 일대에 자생하는 진분홍 산철쭉이 6월에 만개, 다음 주 10일을 전후해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하지만 올해 한라산 철쭉제는 코로나19로 취소를 결정했다.

한라산 산철쭉의 개화 시기는 해발고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나타낸다. 산철쭉은 5월 중순 털진달래가 지기 시작할 무렵 해발 1400고지에서 서서히 개화하기 시작한다. 5월 말 해발 1500고지 영실 병풍바위 일대 산상화원으로 물들이며 점차 해발 1600고지 방아오름 일대, 만세동산에 이어 최고의 군락지인 선작자왓을 거쳐 백록담에 이르면 산철쭉의 향연은 막을 내린다.

산철쭉은 꽃이 잎보다 먼저 피는 털진달래와는 달리 잎이 먼저 돌아나고 꽃이 핀다.

특히, 산철쭉은 햇가지와 꽃자루에 끈적이는 점성이 있고 약간의 독성이 있어 초식동물들이 먹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사)제주특별자치도산악연맹 주관으로 진행되는 '한라산 철쭉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올해는 개최하지 않는다.

고순향 세계유산본부장은 "올해는 전년보다 3~4일 앞선 다음 주 10일을 전후로 한라산 고산초원을 물들이는 진분홍 산철쭉이 윗세오름 일대 선작자왓에 만개를 이루며 한라산 산철쭉의 향연은 절정에 다다를 것"이라며 "야외활동을 계획하는 도민과 방문객들은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백문기자 haru@ihalla.com

코로나19 장기화속 폭염대비 선제 대응

도,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실외 무더위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또 관내 곳곳에 그늘막 등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 설치도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폭염대책기간(5월20일~9월30일) 중 도민 및 관광객들의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에 따라 폭염대응 전담팀(TF) 운영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포함한 단계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노인시설,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실내에 지정된 무더위쉼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임시휴관을 권고하고 필요 시 개방된 실외장소(정자 및 나무그늘, 공원) 등으로 대체 운영할 계획이다.

관내 곳곳에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 설치도 확대된다.

또한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폭염취약계층 8429명의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 4537명도 지정, 운영된다.

오문기자 eioh@ihalla.com

개별주택가격 대부분 "내려달라"

제주시, 이의신청 156호 중 하향요구 153호... 건수는 감소

제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는 개별주택가격 6만1767호에 대해 4월 29~5월 29일 운영한 이의신청기간에 156호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가격 하향요구가 153호로 98%를 차지했고, 상향요구는 3호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동 지역 98호, 읍면 지역 58호로 나

타났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지난해(359호)보다 56.5% 감소했는데, 이는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21%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의 사유별 유형은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각종 공과금 등 세 부담 증가와 기초연금 등 각종 수혜 축소 우려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주거용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과 주변 주거환경 열악도 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가격은 이달 21일까지 검증기관인 한국감정원이 현장확인 등 재검증 절차를 거쳐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26일 조정 공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국제·지방세 등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만큼 접수된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 철저한 재검증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백문기자 haru@ihalla.com

제주매일

제주바다사랑 그림·사진 공모전

2020. 04. 13 - 06. 26

공모요강

주제 제주바다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작품 (이름다운 경관, 바다환경 훼손 현상 등 제주 바다와 관련된 작품이면 모두 가능)

응모기간 2020년 4월 13일 ~ 6월 26일 18:00까지

응모자격 누구나 가능

출품수 그림부문 - 1인 1매
사진부문 - 1인 3점 이내(중복 수상 불가)

출품료 없음

결과발표 2020년 7월 수상자 개별통지 및 제주매일 지면

공모분야

구분	그림부문		사진부문	
	초등부	일반부	초등부	일반부
대상	제주도내 초등학교 학생	누구나 가능		
규격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 8절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 4절지	개별용량 2mb 이상 원본사진 3000pixel이상(jpg)		

시상내역

구분	시상내역		수상 수	
	그림부문	사진부문	그림부문	사진부문
대상	상장 및 부상(30만원 상당)	상장 및 부상(70만원 상당)	1	1
최우수상	상장 및 부상(20만원 상당)	상장 및 부상(50만원 상당)	4	2
우수상	상장 및 부상(10만원 상당)	상장 및 부상(30만원 상당)	6	3
장려상	상장 및 부상(5만원 상당)	상장 및 부상(20만원 상당)	10	5
입상	-	상장 및 부상(5만원 상당)	-	30

* 수상작은 제주바다사랑 공모전 전시회에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접수안내

그림부문 작품 뒷면에 제목, 그린날짜, 이름, 연락처 기재 후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사진부문 제주매일 홈페이지(www.jejumail.net)에서 배너 및 팝업창을 통해 직접 온라인 접수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광로 37 제주매일 사업부

E-mail abcd@jejumail.net

문의 064-747-8111

제주매일에서는 제주바다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경관식 고취를 위해 '제주바다'를 주제로 그림·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